

# 농공단지 지역 주민들의 환경인식에 관한 연구

나승일\* · 강대구\*\*

(\*대구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강사 · \*\*순천대학교 농업교육과 교수)

##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Perceptions of Residents in Rural Industrial Parks

Seung-Il Na\* · Dae-Koo Kang\*\*

\*Dept. of Practical Arts Education, T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t. of Agricultural Educatio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 적 요

이 연구의 목적은 농공단지 개발 사업의 효용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농공단지 입주 업체 및 관련 기관의 환경 행태와 주민들의 환경 친화적 행동을 조사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 나라 농공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 전체이다. 288개 농공단지를 지역, 지정 시기, 규모에 따라 분류하여 24개를 무선 표집하고, 각 농공단지마다 20명씩 총 480명의 주민을 무선표집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고찰을 토대로 질문지를 개발하였고, 우편을 통하여 우송·수집되었으며, 총 416매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농공단지 주민들은 취업 기회 확대, 지역에 이득,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의 소득 증대라는 관점에서 농공단지의 효용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농공단지 조성후 수질 오염, 폐기물, 공기 오염, 토양 오염, 악취 순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졌다고 인지하였다. 주민 4명당 3명 꼴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종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주민 4명당 1명 꼴로 농공단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고,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인식 경로는 직접 보거나 느낌을 통한 것이었다. 그리고 주민들은 대체로 환경보호 운동과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 의사를 보였으며, 주민의 반수 정도는 입주 업체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농공단지 주민들은 비교적 환경친화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나라 1960·70년대의 경제개발이 대도시,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정치, 사회, 문화, 행정은 물론 경제력의 도시 집중 현상이

야기되었고, 이는 도·농간의 극심한 격차를 야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 중심의 공업개발은 도시의 인구집중 가속화 현상을 유발하였고, 농촌 경제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왔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1984년부터 도·농간의 소득 균형을 이룩하고 농어촌 공업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 지역에 농공단지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최양부, 이동필, 1984). 실제로 정부는 1995년까지 예

산 4천 8백 47억원을 투자하여 2백 76개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였다(한국농어민신문, 1996. 8. 16.; 정철영, 1995). 그리고 1997년 6월말 현재 전국 12개 시·도에 총 288개 농공단지 12,896천평이 지정되었으며, 이 중 266개 단지 11,809천평이 조성 완료되었고, 11개 단지 553천평은 조성준비 중에 있다(통상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1997). 이런 농공단지 조성은 농업의 부문에 취업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농가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 개발과 농업 구조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농공단지 개발 사업은 당초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농업 구조 개선의 성과도 얻지 못하고 막대한 농업부문 예산을 들여 농어촌 지역에 저렴한 공업 용지만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한국농어민신문, 1996. 8. 16). 그런데 지금까지 수행된 농공단지 개발 사업의 파급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김경덕, 1989; 김경덕, 류승우, 1988; 김형화, 1988, 1989)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된 이후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농공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 및 생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공단 조성이나 분양가 등을 저렴하게 하고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농공단지 개발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의 이해가 맞물려 농촌 지역의 환경문제가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다(이동필, 이상문, 1996). 실제로 과거 농공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 문제 등을 이유로 개발 사업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하나의 선행 연구(김경덕, 1989)에 의하면, 주민들은 농촌 환경이 농공단지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연구(박대식, 1995)는 농공단지에 공해 산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하여 주변의 농토를 심각하게 오염시켰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농공단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은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및 참여 정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농공단지 개발의 효용성 및 농공단지 조성

이후의 변화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농공단지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성공적인 농공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사업의 효용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농공단지 입주 업체 및 관련 기관의 환경 태도와 주민들의 환경 친화적 행동을 파악하는데 있다.

## 3. 용어 정의

1) 환경인식: 이 연구에서의 환경인식이란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농공단지 개발 사업의 효용성, 환경오염 실태, 입주 업체 및 관련 기관의 환경 태도에 대한 인식으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 4.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농공단지를 지역, 조성 시기, 규모에 따라 분류한 후에 무선으로 선정된 24개 농공단지와 같은 행정구역내 소재한 초등학교의 재학생 가족 및 이웃들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매우 주의를 요한다.

# 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및 표집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 나라 농공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 전체였다. 조사 대상을 표집하기 위하여 288개 농공단지를 지역(경기·강원, 영남, 충청, 호남·제주), 지정 시기(전체 농공단지의 50%인 144번째가 지정된 1989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규모(지정 면적을 기준으로 3만평 미만, 3~5

만평, 5만평 이상)에 따라 분류하고, 24개 농공단지를 무선 표집하였다. 표집된 24개 농공단지로부터 각각 지역 주민 20명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최종 조사 대상은 총 480명이었다.

## 2. 조사 도구 개발

농공단지 지역 주민들의 환경인식을 분석하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토대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질문지는 농공지구 개발 사업의 효용 및 환경 오염 실태에 대한 인식, 입주 업체와 환경 관련 기관의 행태 및 주민의 환경 친화적 행동, 그리고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진이 개발한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는 농공단지 개발 사업과 인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진에 의하여 검증 받았다.

## 3. 자료 수집

자료는 연구진이 개발한 질문지를 대표자에게 우송하여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응답하게 한 후 연구진에게 반송하는 방식으로 우편을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연구진이 개발한 질문지는 선정된 농공단지와 같은 행정구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무주임 교사에게 발송되었고, 질문지 응답은 농공단지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각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기간은 1998년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까지였다. 여러 차례의 확인을 통하여 질문지가 회수된 농공단지는 모두 23곳이었고, 총 416매가 회수되었다. 따라서 설문에 응답한 농공단지 지역 기준의 설문지 회수율은 95.8%였고, 처음 연구진이 보낸 설문지 수를 기준으로 할 때의 회수율은 86.7%였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dow용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 기법은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F-검증,  $\chi^2$  검증이었다.

# III.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1.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를 위하여 농공단지 소재지, 규모, 지정 시기에 따라 표집한 대상자 중 응답자는 총 416명으로, (표 1)과 같은 일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응답자 416명 가운데, 농공단지의 소재지가 호남·제주 지역인 농공단지 주민들이 3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충청도 지역 26.2%, 경기·강원 지역 24.8%, 영남 지역 17.3% 순으로 나타났다. 농공단지의 면적 규모에 따른 주민들의 분포는 5만평 이상의 농공단지 주민이 전체의 38.9%를 차지하였고, 3만평 미만 농공단지의 주민이 31.0%를 차지하였으며, 3만~5만평 규모 농공단지의 주민이 30.0%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50.7%가 1989년 8월 8일 이전에 지정된 농공단지 주민들이었다. 따라서 응답자는 표집 과정에서 고려된 농공단지의 소재 지역, 규모, 조성 시기에 따라 비교적 고른 분포를 이루었다.

전체 응답자를 중심으로 볼 때 남자가 약 61.5%로 여자보다 많았다. 연령은 최저 12세에서 최고 82세까지 분포를 이루었고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루었다. 학력은 고졸이 46%를 차지하였고, 중졸, 국졸 이하, 대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을 농업직과 비농업직으로 구분했을 때 각각 49.5%와 50.5% 비율로 구성되었다. 월평균 소득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은 128,6만원이었고 표준편차는 113만원이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약 40%는 월평균 소득 51~100만원 사이에 해당하였다. 응답자의 약 40%는 환경교육을 받은바 있고, 나머지 약 60%는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농공단지 내 업체에 취업하였거나 자영을 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9.6%에 해당하였다.

## 2. 농공단지 개발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가. 농공단지의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농공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이 지각한 효용성 평균값과 표준 편차는 (표 2)와 같다.

농공단지 개발 사업의 효용성에 관한 9가지 항목

표 1.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빈도(비율)	
농공단지 지역	경기·강원	103(24.8)
	영남	72(17.3)
	충청	109(26.2)
	호남·제주	132(31.7)
농공단지 규모	3만평 미만	129(31.0)
	3만 ~ 5만평	125(30.0)
	5만평 이상	162(38.9)
농공단지 조성시기 <sup>1)</sup>	이전	211(50.7)
	이후	205(49.3)
성 별	남자	256(61.5)
	여자	160(38.5)
연 령 <sup>2)</sup>	30세 이하	9( 2.2)
	31-40	214(52.6)
	41-50	153(37.6)
	51-60	18( 4.4)
	61세 이상	13( 3.2)
학 력	국졸 이하	66(16.1)
	중졸	96(23.4)
	고졸	189(46.0)
	대졸 이상	60(14.6)
직 업	농업직	204(49.5)
	비농업직	208(50.5)
소 득(월 평균) <sup>3)</sup>	50만원 이하	58(18.2)
	51-100	126(39.7)
	101-150	63(19.8)
	151-200	48(15.1)
	201만원 이상	23( 7.2)
환경교육 경험	예	167(40.1)
	아니오	249(59.9)
농공단지 업체 취업 혹은 자영	예	40( 9.6)
	아니오	375(90.4)

1)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정시기 1989년 8월 8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

2) 연령의 평균 41.23, 표준편차 7.51, 범위 12-82

3) 월평균 소득은 평균 128.62만원, 표준편차 113.08, 범위 2-1000 만원

가운데 이론적 평균값 2.5보다 높게 나타난 긍정적인 효용성 항목은 장차 사업 확대 요망(2.79), 취업 기회 확대(2.76), 지역에 이득(2.71), 지역 경제 활성화

(2.70), 농업 외 소득 증대(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농업의 위축과 품앗이, 길흥사 참여 등 전통적인 농촌 문화의 훼손에 대한 주민의 응답

표 2. 농공단지 개발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

문항 (농공단지 개발 사업은 ...)	빈도	평균 <sup>1)</sup>	표준편차
1.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401	2.79	.89
2. 우리 지역에 손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	406	2.71	.78
3. 나에게 손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	404	2.41	.88
4. 농업 외 소득의 증가를 가져왔다.	403	2.61	.81
5.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켰다.	405	2.70	.76
6. 지역 주민의 취업 기회를 확대시켰다.	408	2.76	.75
7. 지역 환경을 오염시켰다.	406	2.10	.71
8. 지역 농업을 위축시켰다.	402	2.48	.70
9. 풀앗이, 길흥사 참여 등 전통적인 농촌 문화를 훼손하였다.	405	2.52	.77

척도: 1)아주 그렇다=4, 그렇다=3, 아니다=2, 전혀 아니다=1, 단 부정 문항은 치환하여 계산함.

은 대략 이론적 평균값과 비슷하게 나타나 지역 주민들이 농공단지 개발 사업의 역효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공단지 개발 사업이 지역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응답은 평균값이 2.10으로 나타나 가장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앞으로 농공단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 농업의 위축, 전통적인 문화 훼손 및 환경 오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 농공단지의 효용성에 대한 주요 변인별 주민들의 인식 차이

앞에서 살펴본 농공단지 개발 사업의 아홉 가지 효용성에 대한 변인별 주민들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만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농공단지의 효용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 지역, 규모, 조성 시기, 성별, 학력, 직업, 환경교육의 경험 유무, 농공단지내 취업 혹은 자영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1.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항목에 대하여 1989년 8월 8일 이전에 지정된 농공단지 주민 집단이 이후에 지정된

표 3. 농공단지의 효용성에 대한 주요 변인별 주민들의 인식 차이 검증

농공단지 효용성	변인		빈도	평균 <sup>1)</sup>	표준편차	t-검증 (F-검증)
1. 확대요망	조성시기 <sup>2)</sup>	이전	204	2.92	.89	2.98**
		이후	197	2.65	.87	
	직업	농업직	199	2.66	.92	2.68**
비농업직	199	2.90	.84			
2. 지역이득	조성시기 <sup>2)</sup>	그렇다	39	3.13	.89	2.54*
		아니다	361	2.75	.88	
	직업	이전	207	2.85	.74	3.55**
이후		199	2.57	.81		
농업직		200	2.63	.92	2.02*	
비농업직	202	2.90	.84			
단지 내 취업/자영	그렇다	38	3.05	.57	2.84**	
	아니다	367	2.68	.80		

(표 3의 계속)

농공단지 효용성	변 인		빈 도	평 균 <sup>1)</sup>	표준편차	t-검증 (F-검증)	
3.개인 이득	조성시기 <sup>2)</sup>	이전	205	2.52	.90	2.47*	
		이후	199	2.30	.85		
	직업	농업직 비농업직	198 202	2.28 2.53	.90 .85	2.94**	
4.농업 외 소득 증대	조성시기 <sup>2)</sup>	그렇다	39	3.10	.72	5.33**	
		아니다	364	2.34	.87		
	학력	이전	204	2.75	.80	3.54**	
		이후	199	2.47	.80		
직업	국졸	65	2.52	.79	3.47* (고졸<대졸이상)		
	중졸	91	2.57	.82			
단지 내 취업/자영	고졸	185	2.56	.83		3.10**	
	대졸 이상	55	2.93	.66			
5.지역 경제 활성화	조성시기 <sup>2)</sup>	농업직	197	2.49	.89	3.24**	
		비농업직	202	2.74	.72		
	직업	그렇다 아니다	40 362	3.00 2.57	.60 .82		
6.취업 기회 확대	조성시기 <sup>2)</sup>	이전	206	2.84	.72	3.87**	
		이후	199	2.55	.77		
	성별	남자 여자	249 156	2.64 2.79	.78 .72	2.02*	
7.환경 오염	직업	농업직	201	2.59	.78	3.11**	
		비농업직	200	2.82	.71		
	규모	3만평 이하	128	2.62	.82	3.39*	
		3만 ~ 5만평	121	2.83	.75		
8.지역 농업 위축	조성시기 <sup>2)</sup>	5만평 이상	159	2.82	.68	3.37* (충청<호남)	
		이전	207	2.90	.70		
	직업	이후	201	2.61	.77		3.72**
		농업직	198	2.63	.81		
단지 내 취업/자영	비농업직	206	2.90	.66	2.14*		
	그렇다 아니다	40 367	3.00 2.73	.68 .76			
9.전통 문화 훼손	환경교육 경험	있다	161	2.01	.69	2.25*	
		없다	245	2.17	.71		
9.전통 문화 훼손	지역	경기·강원	101	2.41	.75	2.30*	
		영남	71	2.51	.68		
	직업	충청	104	2.36	.65		2.31*
		호남·제주	129	2.62	.69		
직업	농업직	199	2.40	.73	2.67**		
	비농업직	199	2.56	.66			
환경교육 경험	있다	162	2.40	.76	2.67**		
	없다	243	2.60	.76			

1)척도: 1)아주 그렇다=4, 그렇다=3, 아니다=2, 전혀 아니다=1. 단 부정 문항은 치환하여 계산함.

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정시기 1989년 8월 8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

\*\*p<0.01

\*p<0.05

농공단지 주민 집단보다, 비농업직 종사자가 농업직 종사자보다, 단지 내 취업 혹은 자영자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2. 우리 지역에 손실.’다는 이득이 더 많다”항목에 대해서도 1989년 8월 8일 이전에 지정된 농공단지 주민 집단이 이후에 지정된 농공단지 주민 집단보다, 비농업직 종사자가 농업직 종사자보다, 단지 내 취업 혹은 자영자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3. 나에게 손실보다는 이득이 더 많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1989년 8월 8일 이전에 지정된 농공단지 주민 집단이 이후에 지정된 농공단지 주민 집단보다, 비농업직 종사자가 농업직 종사자보다, 단지 내 취업 혹은 자영자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4. 농업 외 소득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1989년 8월 8일 이전에 지정된 농공단지 주민 집단이 이후에 지정된 농공단지 주민 집단보다, 비농업직 종사자가 농업직 종사자보다, 단지 내 취업 혹은 자영자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후 검증 결과 특히 대졸 이상의 학력 집단이 고졸학력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5.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켰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1989년 8월 8일 이전에 지정된 농공단지 주민이 이후에 지정된 주민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비농업직 종사자가 농업직 종사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6. 지역 주민의 취업 기회를 확대시켰다”는 항목에 대하여 1989년 8월 8일 이전에 지정된 농공단지 주민 집단이 이후에 지정된 농공단지 주민 집단보다, 비농업직 종사자가 농업직 종사자보다, 단지 내 취업 혹은 자영자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농공단지의 규모가 3만평 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7. 지역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항목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 환경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주민 집단이 환경교육을 받은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평균이 모두 이론적 평균값

에 못 미치므로 부정적인 편임을 알 수 있었다.

“8. 지역 농업을 위축시켰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농공단지의 소재 지역 가운데 사후검증 결과에 따르면 특히 호남·제주 지역 농공단지 주민들이 충청도 주민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또 비농업직 종사자가 농업직 종사자에 비하여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9. 품앗이, 길흉사 참여 등 전통적인 농촌 문화를 훼손하였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비농업직 종사자가 농업직 종사자보다, 환경교육의 경험이 없는 주민이 환경교육이 있는 주민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3. 농공단지의 환경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 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농공단지가 조성된 후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지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농공단지 지역 주민들은 농공단지가 조성된 후 환경 오염 실태는 “1. 냇물이나 지하수 등 수질 오염이 심해졌다(2.90)”, “4. 버려지는 폐기물이 많아졌다(2.79)”, “2. 공기가 많이 오염되었다(2.73)”, “3. 토양 오염이 심해졌다(2.61)”, “8. 악취가 심해졌다(2.61)”, “6.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난다(2.58)” 순으로 더욱 심각해졌다고 응답하였다. 그에 비하여 “5. 산림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와 “7. 진동이 심해졌다”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환경오염에 대한 주요 변인별 주민들의 인식 차이

농공단지가 조성된 후 여덟 가지 환경 오염 심각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차이를 변인별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차이는 것만 (표 5)에 제시하였다. 여덟 가지 환경 오염 가운데 “진동”을 제외한 일곱 가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농공단지 지역, 조성 시기, 성별, 직업, 환경교육의 경험 유무, 단지 내 취업 혹은 자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오염에 대한 농공단지 주민들의 인식은 환경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환경교육을

표 4. 농공단지가 조성된 후 환경 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

문 항 (농공단지가 조성된 후에 ...)	빈 도	평 균 <sup>1)</sup>	표준편차
1. 냇물이나 지하수 등 수질 오염이 심해졌다.	407	2.90	.73
2. 공기가 많이 오염되었다.	408	2.73	.70
3. 토양 오염이 심해졌다.	407	2.61	.71
4. 버려지는 폐기물이 많아졌다.	408	2.79	.70
5. 산림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405	2.43	.68
6.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난다.	408	2.58	.74
7. 진동이 심해졌다.	406	2.31	.67
8. 악취가 심해졌다.	406	2.61	.77

1) 척도: 아주 그렇다=4, 그렇다=3, 아니다=2, 전혀 아니다=1로 계산함.

받은 주민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지역과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지역에 따른 주민의 인식 차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집단간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면 충청 지역, 경기 및 강원 지역, 호남·제주 지역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업직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비농업직에 종사하는 주민 집단에 비하여 대기오염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토양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농공단지 규모, 환경교육의 경험 유무, 단지 내 취업 및 자영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규모 변인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지만 주민 인식의 평균값이 농공단지 지정 면적이 3만평 미만, 5만평 이상, 3~5만평 규모 순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3만평 미만 규모의 농공단지 지역 주민들이 다른 규모의 농공단지 지역 주민보다 토양오염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주민과 단지 내 취업하거나 자영하지 않는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공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하여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산림 훼손에 대해서는 1989년 8월 8일 이후에

조성된 농공단지 주민들이 그 이전에 조성된 농공단지 주민들보다, 환경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주민들보다 더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직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비농업직에 종사하는 주민들보다,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주민들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끝으로,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농공단지가 조성된 후에 악취가 더욱 심해졌다고 응답하였다.

#### 4. 농공단지 입주 업체 및 관련 기관의 환경 행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 가. 업체 및 관련 기관의 환경 행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표 6)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 및 관련 기관의 환경 행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시한 것이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정부 기관의 단속에 대하여 종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주민은 전체의 약 74%이었고, 강화되었다고 응답한 주민들은 전체의 15%이었으며, 종전에 비하여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응답한 주민은 약 11%를 차지하였다. 한편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환경 오염 방지 노력에 대하여 응답 주민들의 약 8%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약 45%는 노력하는 편이라고 한 반면, 나머지 약 47%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5. 환경 오염에 대한 주요 변인별 주민들의 인식 차이 검증

환경 오염	변 인		빈 도	평 균 <sup>1)</sup>	표준편차	t-검증 (F-검증)
1.수질 오염	환경교육 경험	있다	165	3.01	.67	2.34*
		없다	242	2.83	.77	
2.대기 오염	지역	경기·강원	100	2.69	.75	3.16*
		경상권	71	2.61	.64	
		충청권	108	2.90	.68	
	직업	호남·제주	129	2.68	.70	2.52*
농업직		199	2.81	.71		
3.토양 오염	규모	비농업직	205	2.64	.68	3.26*
		3만평 미만	128	2.74	.75	
		3~5만평	120	2.53	.69	
	환경교육 경험	5만평 이상	159	2.57	.69	2.15*
		있다	165	2.70	.71	
단지 내 취업/자영	아니오	242	2.55	.71	-2.00*	
	예	38	2.39	.79		
4.폐기물	환경교육 경험	아니오	368	2.64	.70	2.21*
		있다	166	2.89	.71	
5.산림 훼손	조성 시기 <sup>2)</sup>	아니오	242	2.73	.71	-2.21*
		이전	205	2.36	.67	
	환경교육 경험	이후	200	2.51	.69	3.47**
		있다	163	2.57	.74	
6.소음	직업	아니오	242	2.33	.62	1.99*
		농업직	199	2.86	.77	
	환경교육 경험	비농업직	205	2.51	.70	3.29**
있다		163	2.72	.75		
7.악취	성별	없다	245	2.48	.72	2.51*
		남자	249	2.69	.76	
		여자	157	2.49	.78	

1)척도: 아주 그렇다=4, 그렇다=3, 아니다=2, 전혀 아니다=1로 계산함. 따라서 수치가 클수록 환경오염도는 높음을 의미함.

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정시기 1989년 8월 8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

\*p<0,05

\*\*p<0,01

표 6. 지역 주민이 지각하는 농공단지 업체 및 관련기관의 환경 행태

환경 행 태		빈도(비율)
오염 물질의 배출 업체에 대한 정부의 단속	종전에 비해 약화되었다	44(10.8)
	종전과 별 차이가 없다	301(74.1)
	종전에 비해 강화되었다	61(15.0)
업체의 오염 방지 노력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34( 8.4)
	노력하지 않는다	112(27.7)
	거의 노력하지 않는다	43(10.6)
	노력하는 편이다	181(44.8)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34( 8.2)

나. 업체 및 관련기관의 환경 행태에 대한 주요 변인 별 주민들의 인식 차이

변인별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정부 기관의 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차이를 변인별로 검증한 결과 지역, 규모, 조성 시기, 성별, 학력, 직업, 환경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농공단지 내 취업 혹은 자영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4.7$ ,  $df=2$ ,  $p=.001$ ). (표 7)에 제시되었듯이, 농공단지 내 취업 혹은 자영하고 있는 주민들은 입주 업체의 환경 배출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종전에 비하여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반면 취업 혹은 자영하지 않는 주민들은 종전과 별 차이가 없고 또한 종전에 비하여 약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오염물 배출 방지 노력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대한 변인별 차이 검증 결과에 의하면, 지역, 규모, 조성 시기, 성별, 학력, 직업, 환경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표 8)에 제시되었듯이 농공단지 내 취업 혹은 자영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2.56$ ,  $df=4$ ,  $p=.014$ ). 즉, 현재 농공단지내 업체에 취업해 있거나 자영하고 있는 주민들은 입주 업체가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에 보다 많이 응답하였고, 농공단지에 취업하지 않고 혹은 자영하지 않는 주민들은 업체의 노력이 '전혀 없다', '거의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에 보다 많이 응답하였다.

5. 농공단지 주민들의 환경 친화적 행태

가. 주민들의 환경 친화적 행태

농공단지 지역 주민들의 환경 행태를 간단하게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농공단지가 지역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들어보거나 알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주민들은 전체의 27.4%를 차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52.4%가 농공단지가 조성된 후에 직접 보거나 느낌으로 환경오염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다음이 TV를 통하여, 주위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로 인식하고 있었다. 환경보호 운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10%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 약 69%는 가능하면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환경 오염을 목격하였을 때

표 7. 정부 기관의 환경오염 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차이

변 인		정부기관의 단속			계	검증 결과
		종전에 비해 약화	별차이 없음	종전에 비해 강화		
농공단지 취업/자영	예	3( 7.7)	22(56.4)	14(35.9)	39( 9.6)	$\chi^2=14.7$ , $df=2$ , $p=.001$
	아니오	41(11.2)	279(76.0)	47(12.8)	367( 90.4)	
	계	44(10.8)	301(74.1)	61(15.0)	406(100.0)	

표 8.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차이

변 인		업체의 오염 방지 노력					계	검증 결과
		전혀 노력 하지 않는다	거의 노력 하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다	노력하는 편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농공단지 내 취업/자영	예	1( 2.6)	4(10.3)	6(15.4)	20(51.3)	8(20.5)	$\chi^2=12.56$ , $df=4$ , $p=.014$	
	아니오	33( 9.1)	39(10.7)	106(29.1)	161(44.2)	25( 6.9)		
	계	34( 8.4)	43(10.7)	112(27.8)	181(44.9)	33( 8.2)		

표 9. 농공단지 지역 주민들의 환경 친화적 행태

주민의 환경 행태		빈도(비율)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인지	그렇다	113(27.4)
	아니다	300(72.6)
환경오염의 인식경로	TV를 통하여	105(25.6)
	신문을 통하여	8( 2.0)
	책이나 잡지를 통해서	0( 0.0)
	직접 보거나 느낌으로서	215(52.4)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68(16.6)
	기타	14( 3.4)
환경 운동의 참여의사	확실히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8( 1.9)
	아마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35( 8.4)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86(20.7)
	가능하면 참여하겠다	210(50.6)
	반드시 참여하겠다	76(18.3)
업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 행동	관계 당국에 신고한다	240(58.4)
	당사자를 찾아가 항의한다	95(23.1)
	간섭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52(12.7)
	그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24( 5.8)
업체의 오염 배출 문제 해결을 위한 이웃과의 대화 기회	전혀 없다	56(13.5)
	없다	129(31.1)
	그저 그렇다	63(15.2)
	있다	140(33.7)
	많이 있다	27( 6.5)

응답자의 약 58.4%가 관계 당국에 신고한다고 응답하였고,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겠다는 응답자는 약 23%를 차지하였다. 심지어 그 회사 제품의 불매 운동을 전개한다고 응답한 주민이 5.8%를 차지한 반면, 간섭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고 응답한 주민들이 12.7%나 되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오염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는지는 질문에 약 45%가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약 40%가 대화 경험이 있거나 많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 주민들의 환경친화적 행태의 주요 변인별 차이 검증

(표 10)은 농공단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주민의

인지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인데, 주요 변인들 가운데 성별과 환경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들어보거나 접촉한 주민들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고,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주민들보다 더 많았다.

(표 11)은 농공단지 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의 인식 경로 차이를 검증한 결과인데, 여러 변인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32.19$ ,  $df=12$ ,  $p=.001$ ).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호남·제주 지역 주민들은 환경 오염을 직접 보거나 느낌과 이웃의 이야기를 통한 경로에 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고, 영남 지역 주민들은 TV와 신문을 통한 경로에 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리고 경기 및 강원 지역 주민들은 TV, 신문, 보거나

표 10.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 차이

변 인		환경영향평가 인지		계	x <sup>2</sup> 검증
		예	아니다		
성별	남자	86(34.0)	167(66.0)	253( 61.3)	x <sup>2</sup> =14.45, df=1, p=.000
	여자	27(16.9)	133(83.1)	160( 38.7)	
	계	113(27.4)	300(72.6)	413(100.0)	
환경교육의 경험	있다	64(38.6)	102(61.4)	166( 40.2)	x <sup>2</sup> =17.50, df=1, p=.000
	없다	49(19.8)	198(80.2)	247( 59.8)	
	계	113(27.4)	300(72.6)	413(100.0)	

표 11.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경로 차이

변 인		오염 인식경로					계	x <sup>2</sup> 검증
		TV	신문	보고/느낌	이야기	기타		
지역	경기·강원	19(19.0)	1(1.0)	52(52.0)	19(19.0)	9(9.0)	100( 24.4)	x <sup>2</sup> =32.19, df=12, p=.001
	영남	29(40.3)	3(4.2)	28(38.9)	10(13.9)	2(2.8)	72( 17.6)	
	충청	30(28.3)	1(0.9)	59(55.7)	13(12.3)	3(2.8)	106( 25.8)	
	호남/제주	27(20.5)	3(2.3)	76(57.6)	26(19.7)	0(0.0)	132( 32.2)	
	계	113(25.6)	9(2.0)	300(52.4)	68(16.6)	14(3.4)	410(100.0)	

표 12. 지역 환경 보호 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의사 차이

변 인		환경운동 참여 의사					계	x <sup>2</sup> 검증
		확실하게 불참	아마 불참	상황에 따라	가능하면 참여	반드시 참여		
성별	남자	4(1.6)	17( 6.7)	47(18.4)	130(51.0)	57(22.4)	255( 61.4)	x <sup>2</sup> =1.48, df=4, p=.033
	여자	4(2.5)	18(11.3)	39(24.4)	80(50.0)	19(11.9)	160( 38.6)	
	계	8(1.9)	35( 8.4)	86(20.7)	210(50.6)	76(18.3)	415(100.0)	
학력	국졸	4(6.1)	13(19.7)	16(24.2)	23(34.8)	10(15.2)	66( 16.2)	x <sup>2</sup> =34.03 df=12, p=.001
	중졸	1(1.1)	5( 5.3)	18(18.9)	55(57.9)	16(16.8)	95( 23.3)	
	고졸	1(0.5)	8( 4.2)	42(22.2)	100(52.9)	38(20.1)	189( 46.3)	
	대졸 이상	2(3.4)	8(13.8)	7(12.1)	31(53.4)	10(17.2)	58( 14.2)	
	계	8(2.0)	9( 8.3)	300(20.3)	209(51.2)	74(18.1)	408(100.0)	
환경교육 경험	예	2(1.2)	8( 4.8)	31(18.6)	86(50.9)	41(24.6)	167( 40.2)	x <sup>2</sup> =11.74, df=4, p=.019
	아니오	6(2.4)	27(10.9)	55(22.2)	125(50.4)	35(14.1)	248( 59.8)	
	계	8(1.9)	35( 8.4)	86(20.7)	210(50.6)	76(18.3)	415(100.0)	

느낌, 이야기 경로를 제외한 기타 방법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다.

(표 12)는 지역 환경보호 운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

의사 차이를 검증한 결과인데, 성별, 학력, 환경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지역 환경보호 운동에 대해 남자 주민들은 '가능하면 참여', '반드시

시 참여', 여자 주민들은 '확실하게 불참', '아마 불참', '상황에 따라'에 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다. 또한 국졸 학력의 주민들은 '확실하게 불참', '아마 불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항목에 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고, 중졸 학력 주민들은 '가능하면 참여', 고졸 학력 주민들은 '반드시 참여' 한다는 항목에 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환경교육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반드시 참여', '가능하면 참여'에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확실하게 불참', '아마 불참', '상황에 따라'에 보다 더 많이 응답하였다.

(표 13)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환경 오염 배출 문제에 대한 주민의 대처 행동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인데,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오염 배출을 확인하였을 경우 3~5만평 규모의 농공단지 주민들은 '당사자에게 항의'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5만평 이상 대규모 농공단지의 주민들은 '관계당국에 신고', '무간섭, 지나침', '제품 불매운동'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농업직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당사자에게 항의', '업체의 제품 불매 운동'에 보다 많이 응답하였고, 비농업직 종사 주민들은 '관계 당국에 신고', '간섭하지 않고 그냥 지난다'에 보다 많이 응답하였다.

(표 14)는 업체의 오염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타인과의 대화 경험을 검증한 결과인데, 농공단지 규모, 성별, 환경교육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

표 13. 업체의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대처 행동 차이

변 인		주민의 대처 행동				계	χ <sup>2</sup> 검증
		관계 당국에 신고	당사자에게 항의	무간섭, 지나침	제품 불매운동		
농공단지 규모	3만평 미만	73(57.0)	35(27.3)	13(10.2)	7(5.5)	128( 31.2)	χ <sup>2</sup> = 16.33, df = 6, p = .012
	3~5만평	70(56.9)	36(29.3)	15(12.2)	2(1.6)	123( 29.9)	
	5만평 이상	97(60.6)	24(15.0)	24(15.0)	15(9.4)	160( 38.9)	
	계	240(58.4)	95(23.1)	52(12.7)	24(5.8)	411(100.0)	
직업	농업직	114(56.2)	59(29.1)	16( 7.9)	14(6.9)	203( 49.9)	χ <sup>2</sup> = 14.97, df = 3, p = .002
	비농업직	125(61.3)	34(16.7)	35(17.2)	10(4.9)	204( 50.1)	
	계	239(58.7)	93(22.9)	51(12.5)	24(5.9)	407(100.0)	

표 14. 업체의 오염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타인과의 대화 경험 차이

변 인		주민의 대화 경험					계	χ <sup>2</sup> 검증
		전혀 없다	없다	그저 그렇다	있다	많이 있다		
농공단지 규모	3만평 미만	10( 7.8)	34(26.6)	24(18.8)	52(40.6)	8( 6.3)	128( 30.9)	χ <sup>2</sup> = 18.24, df = 8, p = .020
	3~5만평	12( 9.6)	42(33.6)	19(15.2)	42(33.6)	10( 8.0)	125( 30.1)	
	5만평 이상	34(21.0)	53(32.7)	20(12.3)	46(28.4)	9(33.3)	162( 39.0)	
	계	56(13.5)	129(31.1)	63(15.2)	140(33.7)	27( 6.5)	415(100.0)	
성별	남자	29(11.4)	67(26.3)	37(14.5)	104(40.8)	18( 7.1)	255( 61.4)	χ <sup>2</sup> = 17.38, df = 4, p = .002
	여자	27(16.9)	62(38.8)	26(16.3)	36(22.5)	9( 5.6)	160( 38.6)	
	계	56(13.5)	129(31.1)	63(15.2)	140(33.7)	27( 6.5)	415(100.0)	
환경교육 경험	있다	17(10.2)	40(24.0)	19(11.4)	77(46.1)	14( 8.4)	167( 40.2)	χ <sup>2</sup> = 23.71, df = 4, p = .000
	없다	39(15.7)	89(35.9)	44(17.7)	63(25.4)	13( 5.2)	248( 59.8)	
	계	56(13.5)	129(31.1)	63(15.2)	140(33.7)	27( 6.5)	415(100.0)	

었다. 주민의 대화 경험에 대하여 농공단지의 규모가 3만평 미만인 지역 주민들은 '그저 그렇다', '있다'에 보다 많이 응답하였고, 3~5만평 규모의 지역 주민들은 대화 경험이 '없다'에 보다 많이 응답하였으며, 5만평 이상 규모의 지역 주민들은 '전혀 없다'와 '많이 있다'에 보다 많이 응답하여 극단적인 응답이 나왔다. 그리고 남자들과 환경교육의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있다', '많이 있다'에 보다 많이 응답하였고, 여자들과 환경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전혀 없다', '없다', '그저 그렇다'에 보다 많이 응답하였다.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이 연구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농공단지 주민들은 농공단지 개발 사업의 효용성에 대하여 취업 기회 확대, 지역에 이득,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의 소득 증대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또한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변인별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 호남·제주 지역, 3-5만평 규모, 1989년 8월 8일 이전에 지정된 농공단지, 여자, 비농업직 종사자, 대졸 이상, 농공단지 내 취업 혹은 자영자, 환경교육의 경험이 없는 주민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오염 문제를 농공단지 개발 사업의 가장 큰 역효과로 인식하였다.

둘째, 농공단지가 조성된 이후 지역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은 수질 오염, 폐기물, 공기 오염, 토양 오염, 악취, 소음 순으로 심각해졌다고 인지하였고, 산림의 피해, 진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인지하였다. 특히 충청 지역, 3만평 미만의 소규모 농공단지, 1989년 8월 8일 이후에 조성된 농공단지, 남자, 농업직 종사자, 환경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지역 환경오염에 대하여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셋째, 주민 4명당 3명 꼴로 입주 업체의 환경 오염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종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인

식하였다. 그런데 현재 농공단지 내 취업 혹은 자영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주민들보다 정부의 단속이 종전에 비하여 강화되었고,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주민 4명당 1명 꼴로 농공단지 조성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들어보거나 알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남자, 환경교육을 받은 주민이 더 많이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경로가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이 직접 보거나 느낌을 통한 것이었다. 특히 호남·제주 지역 주민들은 주로 환경 오염을 직접 보거나 느낌, 이웃과의 이야기를 통해서였고, 영남 지역 주민들은 주로 TV와 신문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공단지 지역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환경보호 운동에 대한 참여 의사를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불참 의사를 보였고, 학력이 높을수록 확실한 참여 의사를 보였다. 또한 주민들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하여 대체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농업직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당사자 항의 및 불매 운동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처 행동에, 비업직 종사 주민들은 당국 신고 및 무관섭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 행동에 보다 많이 응답하였다. 한편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오염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경험 유무의 비율은 비슷하였고, 대체로 남자,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농공단지 규모에 따라서는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으나 5만평 이상의 대규모 농공단지 주민들이 보다 대화 경험이 많음을 보였다.

### 2. 제언

이 연구의 결과 및 결론에 근거하여, 성공적인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 방안 모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농공단지 개발 사업의 효용성에 대하여 주민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농공단지 개발 사업은 앞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농공단지 개발 사업의 효용성과 역효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홍보와 적절한 안내 교육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조성 완료되었거나 지정된 농공단지, 남자, 농업직 종사자, 저학력, 농공단지 내 취업하지 않거나 자영하지 않는 자,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농공단지 주민들은 지역 환경오염을 농공단지 개발 사업의 가장 큰 역효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농공단지 개발시 정부 및 입주 업체들은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공기오염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특히 약 3/4의 농공단지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단속이 종전과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정부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환경오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입주 업체 및 정부의 환경 행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그들의 환경 지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환경교육을 받지 않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환경교육을 받은 바 있는 주민들에게도 환경 지식, 기능 및 환경 친화적 행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농공단지 입주 업체와 정부 기관의 환경 친화적 행태에 대하여 농공단지 내 취업 혹은 자영하지 않는 주민들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입주 업체 및 정부 기관의 환경 친화적 행태와 그 실적을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히 알려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을 업체에 초청하여 환경오염 방지 시설 및 노력에 대한 실증을 보여 주거나 TV와 신문과 같은 매체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농공단지 지역주민들의 환경인식 조사를 유층무선 표집으로 선정한 농공단지와 같은 행정구역 내 초등학생들의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조사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주민들을 대상

으로, 주민들의 환경적 지식 수준 등과 같은 변인들을 더 포함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김경덕, 1989, 농공지구개발 사업의 파급효과분석 연구 (3차연도): 강원 횡성군 목계농공지구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김경덕, 류승우, 1988, 농공지구개발 사업의 파급효과분석 및 사후평가연구 (2차연도): 강원 횡성군 목계농공지구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김수옥, 1997, 농촌환경오염의 실태와 주민의 인식도 조사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9(2), pp.69-80.
4. 김형화, 1989, 농공지구개발 사업의 파급효과분석 연구 (3차연도): 충북 진천군 신정농공지구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김형화, 1988, 농공지구 개발 사업의 파급효과분석 연구 (2차연도): 충북 진천군 신정농공지구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김민남, 이성규, 1984, 농촌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8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박대식 외, 1996, 농어촌의 노인 복지 실태와 정책 방향, 연구보고 R34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박대식, 1995, 농촌의 환경오염에 관한 환경사회학적 고찰, 농촌사회 제5집, pp.127-150.
9. 서종혁, 이동필, 조혁중, 1986, 농촌공업 농공지구 개발의 효율적 추진 방안, 연구보고 1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오세익, 강창용, 1993,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보고 2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 오홍석, 류근배, 최석진, 1996, 환경교육,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2. 유순호, 1993, 농촌 환경오염의 실태와 대책,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2), pp.139-154.
13. 윤여덕, 민상기, 주동완, 1984, 마을 발전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78, 한

- 국농촌경제연구원.
14. 이동필, 이상문, 1996, 농어촌지역의 유형 구분과 농공단지 개발 사업의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보고 p.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 이진현, 이인숙, 1994, 농촌지역 개인소유 음용수와 간이상수도의 수질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환경위생학회지 20(1), pp.54-61.
  16. 정철영, 1995, 농촌주민을 위한 직업훈련의 실태와 대책,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7(4), pp.29-46.
  17. 최양부, 이동필, 1984, 농공지구 개발의 방향과 정책 과제, 연구보고 8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 통상산업부·중소기업진흥공단, 1997, 농공단지 현황.
  19. 한국농어민신문, 96. 8. 16, "농공단지 조성사업 재검토해야".
  20. 한국농어민신문, 96. 8. 19, "폐광 농공단지 지정".
  21. 한국농어민신문, 93. 9. 14, "농어촌 개발사업 관리강화".
  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농공지구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4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Choe, Y. B., & Kim, T. M., 1984, *Rural Industrialization in Korea: A Critical Assessment*, Research Report 40, Korea Rural Economics Institute.
  24. Lipton, M., 1989, *New Strategies and Successful Exampl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Testimony Presented at a Hearing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the Third World" held by the Joint Economic Committee of the U. S. Congress, Subcommittee on Technology and National Security, June 20.
  25. McInerney, J. P., 1978, *The Technology of Rural Development*,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295.
  26. South Africa, 1995, *The Rur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Government of National Unity*, General Notice 1153 of 1995, Ministry in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 Discussion Document.
  27. Weisel, P. F., & Mickelwait, D. R., 1978, *Design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An Approach*, A Report Prepared for The Investment Centre The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Washington, D. C.: Development Alternatives, Inc.